

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10 포두면 세동마을 '무당바위'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난 도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윤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낳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른신들의 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설화의 가치도 뛰어났다. 특 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곳에서 '어우야담'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원형일 수도 있을 고흥의 설화를, 스포츠동아가 격주 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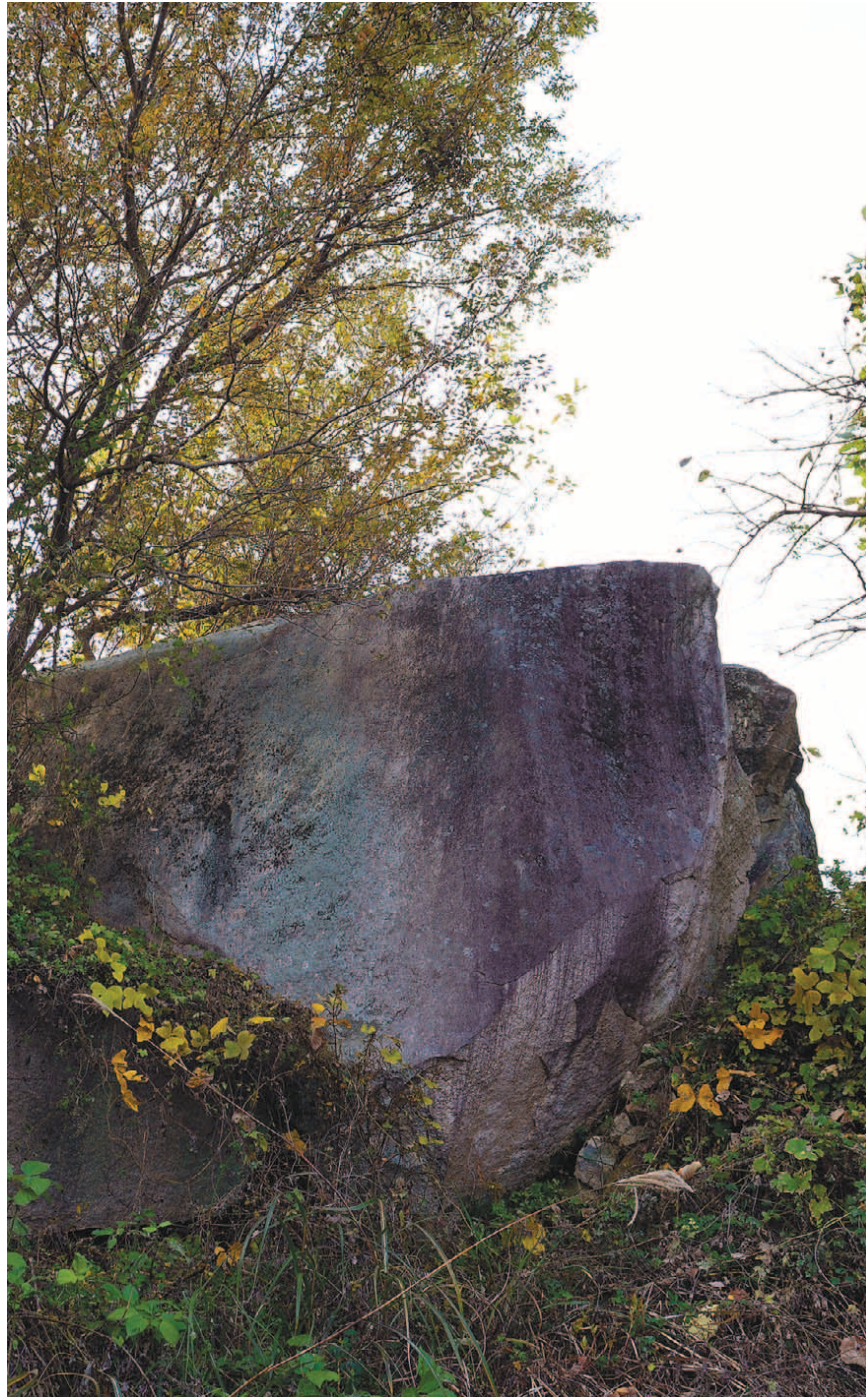


CLIP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 방면→한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동강교차로에서 동강·대서 방면 우측방향→동강면유문에서 나로도·고흥 방면으로 우측방향 고흥로→호영교차로에서 외나로도·고흥 우측방향 학교길→원세동길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

소원 들어주고 제살 내어주고...아낌없이 주는 바위



세동마을의 무당바위는 예부터 소원을 이뤄준다 해 소원바위로도 불렸다. 과거 형태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무당바위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숫기없는 노총각·젊은 과부의 설화 영험한 바위로 입대에 소문이 자자 30년 전만해도 무속인들로 장사진 마르지 않는 샘 덕분에 농사도 짓고 일부는 잘려 나가 학교건물 자재로

전남 고흥은 바다의 고장이자 산과 바위의 마을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시선 닿는 곳마다 너른 바다가 물결을 넘실댄다. 굽이굽이 산과 산도 이어져 있다. 다도해라고 불리는 바다 위 크고 작은 섬, 깊이를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지금도 고장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이자 전설이었다.

점점 골짜기로 둘러싸인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 세동마을은 '세동(細洞) 서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다. 이 마을에서 시작돼 수십년 동안 이어진 설화는 이들의 자부심 섞인 이야기거리로 내려오고 있다.

세동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서영옥(70)씨는 마을이 무탈한 것이 "무당바위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버지 대부터 이어진 설화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면서 그의 마음에도 자연히 믿음이 생겼다. 마을사람 누구나 무당바

● '소원바위'라고 불린 무당바위

11월 중순 세동마을, 유자 수확에 한창이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좁다란 마을길에는 부족한 일손 탓인지 채 거두지 못한 유자가 뒹굴고 있다. 예부터 햇볕 잘 들고 물 맑은 마을에는 유자가 유독 잘 자랐다고 한다.

세동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서영옥(70)씨는 마을이 무탈한 것이 "무당바위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버지 대부터 이어진 설화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면서 그의 마음에도 자연히 믿음이 생겼다. 마을사람 누구나 무당바

위에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든 무속인들이 바위를 앞에 두고 팽과 리와 징, 장구를 두드리며 소원을 비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을 정도다. 마을 서

제섭 이장은 "무당바위의 영험함은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다"며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 꼭대기에 우뚝 자리한 무당바위는 높이가 5M에 이른다. 그 자체로 '돌산'이라고 불려도 될 법한 위용이다. 나무 덩굴과 넝쿨에 둘러싸여 있어 언뜻 보면 바위라기보다 큰 나무숲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동마을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바위가 서 있는 곳만큼은 '진주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서 이장은 "한 덩어리로 된 무당바위가 진주 보석처럼 보이지 않느냐"며 "진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진주곡은 세동마을의 옛 이름인 원세동과 또 다른 마을 장촌 그리고 양지마을 세 곳이 만나는 골짜기를 일컫는, 고장 사람들만의 약속된 지명이기도 하다.

무당바위는 젊은 남녀가 몰래 만나는 비밀장소로도 통했다. 구전 설화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숫기 없는 노총각과 남편을 여린 젊은 여자의 밀회'는 무당바위를 타고서도 지금껏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무당바위를 찾아 소원을 비는 이들 중에 유독 혼기를 놓친 처녀층 각이 많았다.

● 마르지 않는 샘·설화가 이어진 힘

무당바위가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 밑에서 터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 덕분인지도 모른다.

무당바위 설화의 발원지인 샘에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나와 인근 논밭을 적셔왔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부터 세동마을 일대는 7~8월이 되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그래도 무당바위 샘만큼은 마른 적이 없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바위 아래 펼쳐진 넓은 땅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논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지금은 마을에 저수지가 생겨 더는 무당바위 샘물을 논농사에 쓸 필요가 없게 됐다. 무당바위 앞에서 만난 서영옥씨는 50여년 전 마을 저수지 축조에 힘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열대여섯 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돌을 날라 저수지를 만든 뒤부터 논농사 물대기 걱정이 사라졌다"는 그는 "저수지가 생겼어도 한동안 무당바위샘은 동네 아이들의 물놀이터로 쓰였다"고 했다. 설화는 누군가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당바위도 과거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다. 1960년대 마을 인근에 설립된 포두초등학교의 석조 건물 건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무당바위 일부가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무당바위로 어린 학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자'며 기꺼이 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바위를 직접 날라 손수 학교를 세웠다.

고흥(전남) | 이혜리 기자 goh1024@donga.com

TIP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인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이다.

썩으면 무너지던 독...도깨비 여우가 하룻밤에 완성했네

■ 도야마을 '도깨비 방죽' 설화

"지나간 길 따라 방죽이 생겼다고"

민기 힘든 이야기로 시작된 설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다.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도야마을에서 내려오는 도깨비 방죽 설화도 그렇다.

지금은 평지와 다르지 않지만 도야마을 일대는 과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다.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그저 '간척한 땅'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마을에는 바다의 흔적이 남은 물길에 흐른다. 그 물길 양 옆을 막아 놓은 독을 주민들은 '도깨비 방죽'이라고 부른다. 하룻밤 사이 도깨비가 쌓아 완성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야마을에 사는 김송영(77)씨는 11살 무렵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설화를 60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200년 전인지, 500년 전인지 몰라도 옛날엔 이 동네가 바다였다지. 물길을 막으려고 독을 쌓으면 무너지고, 쌓

으면 또 무너지고, 어느 날 밤에 여우 한 마리가 그 물길을 따라 훑 지나가니까, 그 길에 방죽이 생겼더라"고.

도깨비 방죽 바로 옆에는 잉어섬으로 불리는 낮은 동산이 있다. 김송영씨에 따르면 "과거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잉어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잉어섬으로 부른" 곳이다. 김씨는 "그 옛날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거의 생강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잉어섬과 도깨비 방죽 설화는 잊혀지지 않는다"며 "다들 '설화'라고 하지만 '실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흥(전남) | 이혜리 기자



도야마을이 과거 바다를 끼고 있었다는 흔적은 잉어섬(왼쪽)과 도깨비 방죽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민성 기자

음주전후 더 빠른 숙취해소에!

차원이 다른 "간(肝)건강 숙취해소"의 제왕 굿모닝365탄생!

장업주 이진서 (9전10기)

해프는 아침 독도사랑 굿모닝365 건강사랑

Hangover relief and wellness at the same time

간(肝)건강 '숙취, 피로' +건강보양에! 1석2조

대한민국1등 숙취해소용 건강지

대한민국우수발명특허대상 제1433188호

간(肝)건강 피로「스트레스」숙취 두통 구토감 등

정부출연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18개 항목 효능임상검증

2007, 2008년 베스트신상품 히트상품 선정

차원이 다른 간(肝)건강, 피로 '숙취해소'의 제왕

숙취해소 음료에도 **진품명품**이 있습니다.

굿모닝365 창업주 이진서 회장은 1990년 3월 숙취해소 음료 원조개발자로서 여명808 대리점과 남종현 회장의 을애성, 박기원식 고소고발 [갑질]사건으로 약 15년 동안 특허법과 특허무효소송, 식품위생법(어위, 기장, 비방광고) 등 검찰 3회 "혐의 없음", 대법원 2회 "승소확정판결" 간 명예훼손 및 정보처리 2회, 무고 1회 모두 종결 짓고 더욱 정직하고 착한, 겸손한 굿모닝365제품으로 거듭나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의 꿈을 안고 국민·고객님을 다시 찾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고객님에게 진정 배려되는 **간(肝)건강(숙취, 피로) + 건강 보양 제품**으로 보답드릴 것을 다짐하며, 21세기 100에 건강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격려와 성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 140ml」는 효능임상결과 인위적 검체 "숙취해소" 국내외 1위 제품입니다.

※굿모닝365 제품은 2014년도 우수발명특허 대상으로 선정된 고품격 고품질 제품입니다.

※인체유해성 있는/설탕/액상과당/카페인/식용색소/화학방부제 등 5 불 제품을 합니다.

※식품위생법(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등) 특허법으로 15년 간 경쟁사로부터 3회 고소, 고발 **검찰·법원**과 **대법원** "승소판결"된 검증제품으로 더욱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굿모닝 365제품은 의학품이 아닙니다.

※과다한 음주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해칩니다.

기존경쟁사 인기제품과 다른 1+3가지 "차이"

간(肝)건강+숙취해소+피로회복+건강보양

서비스만족대상 한국일보

고객만족1위 상품 스포츠 조선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스포츠 동아

2016 히트상품 선정 일간스포츠

5 無

설탕 액상과당 카페인 하학 방부제 무색소

KBS MBC SBS YTN 광영제품

※무료 시음회 약 10만명 행사전행 / 특집기사 및 신문보도 약 75회 이상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

•지사장 : 전국 광역시·도별 (본사 평생 주주형 15곳)

•대리점 : 전국 시·군 단위 (소자본 500만원 이상)

•대 상 : 건강식음료 유통 경력자 우대 / 유통업소, 노래방, 사우나, 장의사 / 편의점, 도매, 군PX, 코레일 유통 (각종 협회장 및 지역유지급 특별 우대)

(판매회사/납품딜러/프리랜서/무역바이어 환영)

—생명과학을 추구하는 기업—

(주)굿모닝바이오(GM)

GOOD MORNING BIO CO., LTD.

우103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숭실대길 12-20-37 (사명:프리카제 3F 303)

본사 : (代表) 031-908-5003 FAX : 031-908-5002

본사유통(서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2 금석빌딩 F3 층

고객센터: 1800-5034 직통: 010-3202-5002

www.gmn365.com E-mail: gmbio@naver.com / 발행사: (주)현대신약BIO